

# 경찰신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A Multi-Level Approach to Confidence in the Police :  
Based 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Perspectives

정 보 성\*\* · 이 창 배\*\*\*

## 차 례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의 방법 |          |

###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경찰신뢰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수준적 접근을 확장하여 개인적인 요인과 국가수준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을 설문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경찰신뢰에 대한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모두 고려하였다. 즉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써 범죄피해의 직·간접적 경험을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하고, 국가적 수준의 변수로 민주주의 정도와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도 및 인권존중의 정도를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선행연구에 진일보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연령과 사회계층이 높고, 여성이며, 직접범죄피해경험이 없을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 투입된 국가수준의 변수들 중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악화 정도가 심한 지역에 속하는 개인일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개인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검증한 것이 아닌, 국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R1A5A7023490).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교수(교신저자)

수준의 변수까지 모델에 투입하여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계적 선형모델에 56개 국가의 자료를 투입·분석하여 집단수준의 분산을

늘리고, 그에 따라 계수 추정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였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주제어 : 경찰신뢰, 도구적 시각, 표현적 시각, 취약국가지수, 세계가치조사

## I. 서론

2017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7)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0% 미만으로, 조사 대상국가 41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8위에 머물렀다. 한국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70% 이상), 터키(50% 이상), 에스토니아(30% 이상)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는 경찰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어 이 또한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의 56.1%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응답자 중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중요하게 취급되어져 왔고,<sup>1)</sup> 예전부터 강조되어 오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활동

1) Skogan, W. G., & Frydl, K.,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 the evidence(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인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경찰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up>2)</sup>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Legitimacy)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정당성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지지 또는 신뢰는 경찰조직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sup>3)</sup>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경찰신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ilson과 Kelling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경찰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경찰신뢰와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sup>4)</sup>

경찰신뢰의 중요성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검증해 왔고, 특히 경찰의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지역 및 국가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에 따라 다수준적 접근을 통해 영향력을 규명해 왔다.<sup>5)</sup> 그러한 요인들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패

2) 김구,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신뢰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3호, 2005, 49-72쪽.

3) Jackson, J., & Bradford, B., “Crime, policing and social order : on the expressive nature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009, 60(3), pp. 493-521.

4) 이윤희, 경찰학, 박영사, 2014.

5) Cao, L., Frank, J., & Cullen, F. T.,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996, 15(1), pp. 3-22.; Jackson, J., & Bradford, B., op. cit.; Reisig, M. D., & Parks, R. B.,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 A hierarch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2000, *Justice Quarterly*, 17(3), pp. 607-630.;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services : Race, neighborhood context, and community policing”, *Police Quarterly*, 2003, 6(4), pp. 440-468.; Skogan, W. G.,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 Reassurance or

수준, 경제적 불평등 정도, GNP 중 질서유지와 안전에 대한 비용, GNP 중 복지 관련 지출 등을 국가수준의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지만,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도와 인권존중의 정도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경찰신뢰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수준적 접근을 확장하여 개인적인 요인과 국가수준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다양한 국가의 시민들을 설문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경찰신뢰에 대한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 범죄피해의 직·간접적 경험을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였고, 국가적 수준의 요인으로 민주주의 정도와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도 및 인권존중의 정도 등을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찰신뢰의 개념

신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누군가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개념 자체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의 통일된 개념은 없다. 마찬가지로, 경찰신뢰의 개념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 만족도와 공정성,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인식 등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경찰신뢰를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

---

accountability?”, 2009, *Police Quarterly*, 12(3), pp. 301–318.

기는 어렵다.<sup>6)</sup>

일반적으로 경찰신뢰는 대중이 경찰에 대해 느끼는 신뢰의 정도 혹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대중이 경찰에 의존하는 정도로 언급되고 있다.<sup>7)</sup> 이상원·송건섭(2001)의 연구에서는 경찰신뢰를 두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민이 경찰행정 또는 경찰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호의적인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지속적 성향’이라는 광의적 차원의 개념과 ‘국민이 경찰행정 또는 경찰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 또는 ‘국민이 경찰행정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협의적 차원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정현·송건섭(2002)은 경찰신뢰를 신용적 신뢰, 상호적 신뢰, 사회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신용적 신뢰란 경찰이 공익과 도덕적·윤리적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개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신뢰이다. 상호적 신뢰는 경찰과 시민은 서로의 이익관계를 고려하고 협력하며 믿음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신뢰는 시민과 경찰은 상호 의존적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것 등을 말한다.

경찰신뢰의 측정과 관련하여 Stoutland(2001)는 경찰에 대한 신뢰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라 하며, ‘경찰을 얼마나 신뢰합니까?’라는 단면적인 질문으로는 경찰신뢰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현석(2013)의 연구에 따르면, 단일 문항으로 일반적인 경찰에

6) Jackson, J., & Sunshine, J.,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07, 47(2), pp. 214-233.

7) Cao, L., Frank, J., & Cullen, F. T., op. cit.; Decker, S. H.,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81, 9(1), pp. 80-87.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도 여러 문항을 사용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Stoutland(2001)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연구도 다소 발표되었다.

## 2.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

### 1) 도구적 시각

도구적 시각은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가운데, 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경찰의 핵심 업무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활동의 결과, 범죄의 감소와 같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좋으면 경찰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sup>8)</sup> 이러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경찰조직의 존재 목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우리나라 경찰의 임무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에 대한 책임자라는 인식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9)</sup> 현실적으로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법, 경찰,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범죄발생 및 대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sup>10)</sup>

8) 장현석,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 213-236쪽.

9) 장현석,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 제23권 제1호, 241-262쪽.

10) 장현석, 위 논문.

장현석(2014)의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경험이 없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범죄인식과 범죄율이 낮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반대로 이러한 평가지표들에서 성적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의 평가는 낮아져서 경찰신뢰가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시민들이 범죄통제의 실패한 책임과 범죄로 인한 개인적인 불안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신뢰도로 나타난다는 접근이다.<sup>11)</sup>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경찰업무 효율성 평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범죄율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하였고,<sup>12)</sup>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발견되었다.<sup>13)</sup>

## 2) 표현적 시각

표현적 시각은 도구적 시각과는 달리, 경찰신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 또는 사회의 도덕적 질서 수준을 변수로 투입하여 설명한다.<sup>14)</sup>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찰을 생각할 때 범죄와 맞

11) Skogan, W. G., op. cit.; Weitzer, R., & Tuch, S. A., "Race and perceptions of police misconduct", *Social Problems*, 2004, 51(3), pp. 305-325.

12) Cao, L., Lai, Y. L., & Zhao, R., "Shades of blue :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2, 40(1), pp. 40-49.; Jang, H., Joo, H. J., & Zhao, J. S.,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0, 38(1), pp. 57-68.

13) Xu, Y., Fiedler, M. L., & Flaming, K. H., "Dis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 The broken windows thesis, collective efficacy, and citizens'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05, 42(2), pp. 147-186.

서 싸우는 ‘Crime Fighter’ 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가 무엇을 나타내는 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가 상존한다.<sup>15)</sup> 범죄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과 ‘사회적 결속’을 침해하는 행위의 결과이다. 경찰활동은 사회적 계약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결속의 약화 또는 질서의식의 약화라는 ‘사회적 상태’와 그 위반인 ‘범죄’라는 결과 두 가지 중에서 경찰신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결속의 약화 또는 질서의식의 약화라는 ‘사회적 상태’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지역유대가 약하고 질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반영된다는 것이다.<sup>16)</sup>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범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결속이 붕괴된 상태 그 자체만으로 경찰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 즉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경찰의 역할 중에서 지역사회 기초질서와 도덕성에 대한 방어자 또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된다. 즉 높은 범죄율 또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책임론보다도 지역사회가 안정되게 질서가 유지되고, 지역주민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잘 이루어지느냐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을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라고

14) 장현석, 앞의 논문. : Jackson, J., & Bradford, B., op. cit.; Jackson, J., & Sunshine, J., op. cit.

15) 장현석, 앞의 논문.; Hough, M., “Modernization and public opinion : some criminal justice paradoxes”, *Contemporary Politics*, 2003, 9(2), pp. 143-155.; Jackson, J., & Bradford, B., op. cit.

16) 장현석, 앞의 논문.; Innes, M., “Reinventing tradition? Reassurance, neighbourhood security and policing”, *Criminal Justice*, 2004, 4(2), pp. 151-171.; Jackson, J., & Bradford, B., op. cit.

하며, Reiner(1992)는 시민들이 경찰을 인식하는데 있어 상징주의적 혹은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찰신뢰도 모형을 적용하였다. 한편, 장현석(2013)의 연구는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연구에서 사회적 결속 및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도와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등을 설명 요소로 포함하여 검증하였다.<sup>17)</sup>

### 3. 선행연구의 검토

먼저 일반적으로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신뢰주체의 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신뢰 대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연구가 주요한 연구의 중심이다.<sup>18)</sup> 대중과 경찰 간의 관계에 관한 초기연구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경찰신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덧붙여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한 인식모델<sup>19)</sup>이나 경찰과의 접촉경험 모델<sup>20)</sup>에 주목하고 있다.

Jang과 그의 동료(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민주주의와 경찰신뢰의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개인이 인식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신뢰

17) 장현석, 위의 논문.

18)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5, 20(3), pp. 709-734.

19) Cao, L., Frank, J., & Cullen, F. T., op. cit.; Skogan, W. G.,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s: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Policy Studies Journal*, 7, pp. 469-479.

20) Cao, L., Frank, J., & Cullen, F. T., op. cit.; Reisig, M. D., & Parks, R. B., op. cit.;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 op. cit.

역시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개인수준이 아닌 국가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정도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진행된 연구도 존재하며, 대표적으로는 Sung(2006)의 연구와 Cao와 그의 동료(2012)의 연구이다. Sung(2006)과 Cao와 그의 동료(2012)는 공통적으로 미국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는데, 연구결과 민주주의의 정도와 경찰신뢰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 즉 포물선 형태의 관계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은 국가의 경찰신뢰가 높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도가 낮은 국가의 경찰신뢰 역시 높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이다.

범죄피해의 직·간접적인 경험 또는 범죄피해두려움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sup>21)</sup> Cao와 그의 동료(1996)는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수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설명력이 강하다고 했다. 범죄피해경험이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 이후에 경찰이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다루는 과정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한다.<sup>22)</sup> 즉, 피해사실 자체보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처우를 하는가에 따라 경찰신뢰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21) Apple, N., & O'Brien, D.,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and residents' evaluation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83, 11(1), pp. 76-84.; Cao, L., Frank, J., & Cullen, F. T., op. cit.

22) Cao, L., Frank, J., & Cullen, F. T., op. cit.

23) Xu, Y., Fiedler, M. L., & Flaming, K. H. "Dis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 The broken windows thesis, collective efficacy, and citizens'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05, 42(2), pp. 147-186.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수준의 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up>24)</sup> 이러한 결과는 서구국가들과 우리나라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점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는 한 사회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지지하는 국외에서의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sup>25)</sup>과 소득수준<sup>26)</sup>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임창호(2013)는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인권강조를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현석(2013)의 연구는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경찰신뢰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인권과 경찰신뢰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24) 류준혁, “위계선형 접근법을 통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586-602쪽.; Hwang, E. G., McGarrell, E. F., & Benson, B. L.,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South Korean Police : The effect of residential location in a rapidly industrializing n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05, 33(6) : 585-599.

25) 장현석, 앞의 논문, 2013.

26) 류준혁, 위의 글.; 주재진, “경찰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제10권 제4호, 330-3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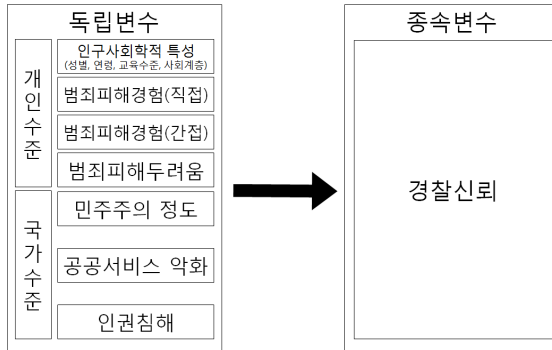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개인과 국가수준의 특성들이 경찰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수준은 다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직접), 범죄피해경험(간접), 범죄피해두려움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시켰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도구적 시각을 반영한 변수들로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 그리고 범죄피해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경찰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경찰신뢰는 각 국가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찰신뢰의 정도는 그 국민이 인지하는 경찰신뢰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이 경찰을 신뢰하는 데 있어 국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현적 시각을 반영한 국가수준의 변수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와 치안, 교육, 위생, 인프라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도, 정치와 언론의 자유, 고문 및 임의감금 여부에 따른 인권존중의 정도를 포함시켜 국가의 정치체제와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인권존중의 정도에 따른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자료

이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 자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미국 미시간 대학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자료의 수집 및 배포를 완료한 WVS 6회차(2010-2014)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는 WV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sup>27)</sup> WVS 6회차 자료는 2010-2012년 동안 57개국에서 19세 이상 약 85,000명의 응답자를 유의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으로 선택해 20여 가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모은 자료이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전국의 각 지역을 포함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모아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27) <http://www.worldvaluessurvey.org>(2018. 4. 10. 검색).

다.<sup>28)</sup>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나 경찰서에서 편의표집방법(Convenient sampling)에 의해서 모아진 자료를 분석한 경찰신뢰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05년에 수행된 5차 자료에는 없던 문항인 직·간접 범죄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형태에 대해 묻는 문항 등 범죄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어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따라서 경찰신뢰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짚어보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가수준 분석자료는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로 기존의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 Survey, 이하 FSI)에서 2014년에 명칭이 변경된 자료이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이하 FP)와 연구단체 '평화재단'이 2005년부터 세계 177개국의 정치, 경제, 인권, 치안, 안보 등 12개 분야의 불안 정도를 조사하여 수치·계량화한 것으로 치명적(Critical), 위험(In danger), 경계(Borderline), 안정적(Stable), 가장 안정적(Most Stable)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FSI는 CAST(Conflict Assessment System Tool : 갈등평가시스템도구)를 이용하여 위험지표를 기초로 세계적 안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12개 지표를 분석한다. 취약국가지수는 2005년부터 조사·시행되어, 현재는 2017년까지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분석 자료인 WVS 6차년도 자료와 조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8) 장현석, 앞의 논문, 2013.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1) 종속변수

선행연구들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어떠한 연구는 단일 문항(예: 귀하가 느끼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으로 측정한 경우도 있고,<sup>29)</sup> 만족도, 공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포함하여 지표(Scale)를 만들어 측정한 경우도 있다.<sup>30)</sup>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태도 인식에서 경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은 일반적 태도 인식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고,<sup>31)</sup> 또한 단일 문항으로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도 여러 문항을 사용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2)</sup>

29) Jang, H., Joo, H. J., & Zhao, J. S., op. cit.; Cao, L., Lai, Y. L., & Zhao, R., op. cit.; Wu, Y., Sun, I. Y., & Triplett, R. A., "Race, class or neighborhood context : which matters more in measuring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2009, 26(1), pp. 125-156.

30) 황의갑,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2013, 12(4), 411-434쪽; Jackson, J., & Sunshine, J., op. cit.; Ren, L., Cao, L., Lovrich, N., & Gaffney, M.,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05, 33(1), pp. 55-66.; Sunshine, J., & Tyler, T. R.,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2003, 37(3), pp. 513-548.

31) Brandl, S. G., Frank, J., Worden, R. E., & Bynum, T. S., "Global and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Justice quarterly*, 1994, 11(1), pp. 119-134.

장현석(2013)은 2005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측정된 “당신은 경찰조직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한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경찰신뢰를 광의적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장현석(201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2010-2014년 WVS의 경찰신뢰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경찰에게 국민이 느끼는 매우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인식과 감정”을 경찰신뢰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귀하는 다음의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문항 중 경찰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많이 신뢰한다, 4) 아주 많이 신뢰한다”로 답변한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up>32)</sup>

〈표 2〉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

변수	변수의 정의와 코딩	출처
경찰 신뢰	경찰조직이나 단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 경찰조직이나 단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2 경찰조직이나 단체를 많이 신뢰한다 = 3 경찰조직이나 단체를 아주 많이 신뢰한다 = 4	WVS 6th wave (2010-2014)

## 2) 독립변수

국가수준의 독립변수로 세계 각국의 취약국가지수 지표들 중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정도, 공공서비스 악화, 인권침해, 총 3개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의 값은 기존의 실패국가지수의 값

32) Cao, L., Lai, Y. L., & Zhao, R., op. cit.: Jang, H., Joo, H. J., & Zhao, J. S., op. cit.

33) 분석과 해석의 편리함을 위하여 역코딩 하였다.

(0-10)을 연속변수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값이 클수록 국내 갈등 및 국가 붕괴 위험이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사회적·경제적·정치 - 군사적 지표와 관련된 정보이며, 분석대상 국가의 각 지표들에 관한 질적 정보를 투입하여(qualitative inputs), 정량분석을 통해 수치·계량화한다. 수치화된 점수가 높을수록 국내 갈등 및 국가 붕괴 위험이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자료를 활용하는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UN(United Nations)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당성의 하위항목으로 측정된 민주주의의 정도는 국가 요인에 의한 내부 부패 및 사리사욕,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저항 등을 측정치로 삼는다. 즉 이 측정치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는 시민의 평등권, 노동권, 국정참여권,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측정치로 삼는다. 셋째, 공공서비스 약화는 국민보호 기능의 제공 실패를 측정치로 한다.

〈표 2〉 국가수준 독립변수

변수	변수의 정의와 코딩	출처
민주주의의 정도	연속변수	FSI, 2010
공공서비스의 약화	연속변수	FSI, 2010
인권침해	연속변수	FSI, 2010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도구적 시각을 바탕으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직·간접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두려움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경찰신뢰에 유의미한 의미를 보인 성별은 이항변수(남자 1, 여자

0)로 변환하였다. 연령의 경우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1) 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2) 초등학교 중퇴, 3) 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중퇴, 5) 중학교 졸업, 6) 고등학교 중퇴, 7) 고등학교 졸업, 8) 전문대, 그리고 9) 대학교 형식의 응답으로 측정된 응답을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회계층은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상위, 2) 중상위, 3) 중하위, 4) 근로계층, 5) 하위 형식의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위해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 개인수준 독립변수

변수	변수의 정의와 코딩	출처
성별	여자 = 0 남자 = 1	WWS 6th wave (2010-2014)
연령	연속변수	WWS 6th wave (2010-2014)
교육수준	정규교육 받지 못함 = 1 초등학교 중퇴 = 2 초등학교 졸업 = 3 중학교 중퇴 = 4 중학교 졸업 = 5 고등학교 중퇴 = 6 고등학교 졸업 = 7 전문대(재학 및 중퇴 포함) = 8 대학교(재학 및 중퇴 포함) = 9	WWS 6th wave (2010-2014)
사회계층	상위 = 1 중상위 = 2 중하위 = 3 근로계층 = 4 하위 = 5	WWS 6th wave (2010-2014)

변수	변수의 정의와 코딩	출처
범죄피해경험 (직·간접)	없음 = 0 있음 = 1	WVS 6th wave (2010-2014)
범죄피해두려움	전혀 느끼지 않음 = 1 거의 느끼지 않음 = 2 가끔 느낌 = 3 자주 느낌 = 4	WVS 6th wave (2010-2014)

범죄피해경험은 본인이 직접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과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한 간접적 경험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은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1) 있다, 2) 없다 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한 해 동안 귀하의 가족 중에 범죄의 피해자가 된 가족이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1) 있다, 2) 없다 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이항변수로(없다 0, 있다 1) 재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두려움은 “지난 한 해 동안 귀하께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1) 자주 느낌, 2) 가끔 느낌, 3) 거의 느끼지 않음, 4) 전혀 느끼지 않음이라는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할 자료는 다수준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단층구조의 자료만을 분석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분산분석 등의 연구방법으로는 2가지 수준으로 측정된 자료를 활

용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은 실제로 국가 간 경찰신뢰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을 위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집단효과를 추정하는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모형(Individual Model), 최종적으로 결합 모형(Combined Model) 분석을 통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 Centering이다. 즉 독립변수의 측정방법에 따라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집단평균 중심화(Group Mean Centering) 또는 평균 중심화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0의 값을 가질 수 없도록 측정된 연속변수의 경우 Grand Mean Centering 하였고,<sup>34)</sup> 독립변수가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의 경우에는 연구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Centering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표 4>는 연구에서 투입된 개인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이다. 종속변수인 경찰신뢰는 평균 2.61로 중앙값 이상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

34) 이 연구에서 활용된 연속변수의 측정은 0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절편값이 논리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또한 Group Mean Centering을 해야 할 특별한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Grand Mean Centering하였다.

구한 장현석(2013, 201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49%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42세(SD=16.46)로 최저령자 16세부터 최고령자 99세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5.64, 평균 사회계층은 2.43으로, 평균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은 중위권 응답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개인수준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Mean / % <sup>35)</sup>	SD	Min	Max
경찰신뢰	76610	2.61	0.95	1.00	4.00
성별	76610	49%	0.50	0.00	1.00
연령	76610	41.99	16.46	16.00	99.00
교육수준	76610	5.64	2.43	1.00	9.00
사회계층	76610	2.73	1.00	1.00	5.00
직접범죄피해경험	76610	8%	0.28	0.00	1.00
간접범죄피해경험	76610	11%	0.31	0.00	1.00
범죄피해두려움	76610	1.59	0.89	1.00	4.00

전체 응답자중 직접범죄피해와 간접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8%와 11%로 나타나 범죄피해경험을 경험한 응답자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범죄피해두려움의 평균은 1.59로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피해 두려움을 “1=거의 느끼지 않는다”와 “2=가끔 느낀다” 사이의 수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국가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로 전체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35) 이항변수로 측정된 결과치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로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이다. 전체 국가의 평균 민주주의의 정도 취약지수는 5.96(SD=2.51)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정도로 인한 갈등이나 국가 붕괴 위험도가 중앙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국가의 공공서비스의 악화로 인한 평균 취약지수는 4.97로 중앙값보다 약간 낮았지만 거의 근접하여, 대부분의 국가의 공공서비스 악화로 인한 갈등 또는 붕괴 위험은 중간수준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한편, 인권침해 변수의 평균은 5.73(SD=2.28)인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표 5〉 국가수준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Mean	SD	Min	Max
민주주의의 정도	56	5.96	2.51	0.80	9.60
공공서비스 악화	56	4.97	2.12	1.30	9.40
인권침해	56	5.73	2.28	1.30	9.50

## 2. 무조건 모형과 개인수준 모형

### 1) 무조건 모형(Uncondition Model)

먼저 국가 간 경찰신뢰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Uncondition Model)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고정효과에서 경찰신뢰의 평균은 2.62로 나타났다. 임의효과에서는 국가 간 분산이 0.14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01$ ).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신뢰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같은 국가에 사는 응답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할 경우 상호 간에 독립성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즉 무조건 모형의 검증 결과 경찰신뢰에는 국가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국가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경찰신뢰를 설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의 전체 분산량에서 집단 분산의 비중을 알 수 있는 ICC(Intra-class Correlation)를 계산한 결과 경찰신뢰의 총 분산량에서 국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분산은 약 15.84%(ICC=0.158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산의 총량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작은 수치일 수 있으나, ICC 값이 보통 0.05이상일 경우 다층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sup>36)</sup> 국가 간 충분한 변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p=.000$ (Chi-square=13299.57209)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개인수준 모형(Individual Model)

무조건 모형 검증의 주요 역할은 개인수준의 분석을 넘어 국가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검증이 필요한지의 여부, 즉 다층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개인수준 모형에서는 종속변수, 즉 경찰신뢰에 대한 각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면서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경찰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무조건 모형과 개인수준 모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36) Bliese, P. D., "Within-group agreement, non-independence, and reliability: Implications for data aggregation and analysis", In K. J. Klein & S. W. J. Kozlowski (Eds.), *Multilevel theory, research, and methods in organizations: Foundations, extensions, and new directions*, pp. 349-381, CA: Jossey-Bass.

〈표 6〉 무조건 모형과 개인수준 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 1 : 무조건 모형			모형 2 : 개인수준 모형		
	Coefficient	SE	T-ratio	Coefficient	SE	T-ratio
Intercept	2.62	0.05	51.971***	2.64	0.048	54.851***
연령				0.002	0.0004	4.22***
교육수준				-0.012	0.004	-2.78**
성별(남자=1)				-0.034	0.012	-2.67**
사회계층				0.048	0.006	7.19***
범죄피해두려움				-0.019	0.015	-1.27
직접범죄피해경험				-0.053	0.02	-2.63**
간접범죄피해경험				-0.03	0.02	-1.50
임의효과						
Variance component( $r_{0j}$ )	0.144			0.136		
Variance component( $u_{0j}$ )	0.765			0.761		
$X^2$	13299***			12480***		
Variance Explained <sup>37)</sup> (%)	-			5.56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 연령과 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계층)가 높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직·간접

37) Proportion variance explained 통계를 통해 계산이 가능한데, 무조건 모형에 비해 개인수준 모형에서 투입된 7개의 개인수준 변수의 추가로 인해 경찰신뢰의 변량 중 5.56%의 설명이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Raudenbush et al., 2002).

범죄피해경험과 범죄피해두려움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범죄피해두려움과 간접피해경험은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경찰신뢰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직접범죄피해경험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 3. 결합모형

마지막으로는 개인수준의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의 영향을 함께 살펴 보았다. 임의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 변수와 국가수준 변수가 모두 투입된 결과로 개인수준의 분산과 국가수준의 분산 모두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수준 변수의 경우 모델1(무조건 모형)에서 의미했던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의 변수와 다른 국가수준의 변수가 모두 통제되고 국가 간 분산이 대부분 설명된 후에도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인권침해 변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 악화는 계수 값이 -0.112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의 악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 속할수록 개인의 경찰신뢰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 개인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인권침해의 정도가 높은 나라에 속한 개인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경찰을 더 신뢰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신뢰 확보를 위한 인권침해의 정당성 확보와 같은 논리를 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침해와 경찰신뢰와의 영향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 보기위해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가수준의 변수 투입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수준 모형과 결합 모형의 변량을 가지고 Proportion variance explained를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0.257로, 3가지의 국가수준 변수의 투입으로 모형의 설명이 25.7%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는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결합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모형 3 : 결합모형		
	Coefficient	SE	T-ratio
개인수준			
Intercept	2.66	0.04	64.326***
연령	0.002	0.056	2.693***
교육수준	-0.011	0.004	-2.793**
성별(남자=1)	-0.034	0.013	-2.70**
사회계층	0.048	0.006	7.181***
범죄피해두려움	-0.018	0.015	-1.262
직접범죄피해경험	-0.053	0.020	-2.626**
간접범죄피해경험	-0.029	0.020	-1.495
국가수준			
민주주의 정도	-0.091	0.059	-1.545
공공서비스 제공 약화	-0.112	0.043	-2.590*
인권침해	0.152	0.056	2.693*
임의효과			
Variance component( $r_{0j}$ )		0.106	
Variance component( $u_{0j}$ )		0.761	
$X^2$		9324.01***	
Variance Explained(%)		25.7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이 연구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수준의 변수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고, 또한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 각 개인은 일정 국가에 속해있고, 국가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 통합과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sup>38)</sup>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영향요인만을 검증하거나 국가수준의 영향요인만을 연구한 논문이 대다수였다.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한국인의 경찰신뢰에 대한 송영남 외(2015)의 연구는 한국 16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Level 2 집단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Level 2 수준에서 56개 국가의 자료를 투입하여 분석한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연령과 사회계층이 높고, 여성이며, 직접범죄피해경험이 없을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 투입된 국가수준의 변수들 중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악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는 개인일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8) 송영남 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의 경찰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2015, 제9권 제1호, 3-32쪽.

다. 이 연구에서 공공서비스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찰, 군대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로, 병원 등 국가기반시설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경찰 역할을 반증한다. 즉 적절한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는 경찰의 신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다. 다만, 국가신뢰와 경찰신뢰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두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한편, 인권침해의 정도에 대한 국가변수는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반대로 확인됐다. 즉 인권침해의 정도가 높은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인권침해의 정도가 높은 나라에 속한 개인이 더 높은 경찰신뢰를 보였다. 2차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자체의 본질적 문제로 말미암은 결과인지, 실제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개인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검증한 것이 아닌, 국가수준의 변수까지 모델에 투입하여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계적 선형모델에 56개 국가의 자료를 투입·분석하여 집단수준의 분산을 늘리고, 그에 따라 계수 추정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줄였다는 점 역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신뢰의 절편 차이만을 고려하여 그 변화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2차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변수의 측정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보완된다면 경찰신뢰도 연구에서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고

려한 다수준적 분석이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접수 : 2018. 11. 15, 심사개시 : 2018. 11. 18, 게재확정 : 2018. 12. 11.〉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7). 2017.

이운호, 경찰학, 박영사, 2014.

#### 2. 논 문

김구,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신뢰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3호, 2005.

김정현·송건섭,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신뢰결정 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2002.

류준혁, “위계선형 접근법을 통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송영남·최재용·이운호, “위계적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의 경찰신뢰도 영향 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제9권 제1호, 2015.

신성식,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유영현·신성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2008.

이상원·송건섭, “국민의 경찰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3권, 2001.

이재영, “경찰-주민접촉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1.

- 임창호, “경찰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2013.
- 장현석, “경찰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a.
- \_\_\_\_\_,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1호, 2014b.
- \_\_\_\_\_,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
- \_\_\_\_\_. 김소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찰신뢰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5.
- 주재진, “경찰공무원의 신뢰형성요인, 신뢰 및 조직효과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1호, 2012.
- \_\_\_\_\_, “경찰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8.
- 채한수, “경찰수사 신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흥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 및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한보영·최재용·이윤호,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
- 황의갑,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4호, 2013.

### 3. 기타

- 경찰청, “2017년 난폭운전 단속수사 결과 분석,” 경찰청 내부자료, 2018.

## II. 외국 문헌

### 1. 단행본

Bliese, P. D., "Within-group agreement, non-independence, and reliability : Implications for data aggregation and analysis", In K. J. Klein & S. W. J. Kozlowski (Eds.), *Multilevel theory, research, and methods in organizations : Foundations, extensions, and new directions*, pp. 349-381, CA : Jossey-Bass.

Raudenbush, S. W., & Bryk, A. S., *Hierarchical linear models :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AGE, 2002.

Skogan, W. G., & Frydl, K.,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 the evidence*,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2. 논문

Apple, N., & O' Brien, D.,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and residents' evaluation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1(1), 1983.

Brandl, S. G., Frank, J., Worden, R. E., & Bynum, T. S., "Global and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Justice quarterly*, 11(1), 1994.

Cao, L., & Hou, C., "A comparison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China and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2), 2001.

\_\_\_\_\_, & Zhao, J. S., "Confidence in the poli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2005.

- Cao, L., "A problem in no-problem-policing in Germany : Confidence in the police in Germany and USA",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9(3), 2001.
- \_\_\_\_\_, Frank, J., & Cullen, F. T.,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1), 1996.
- \_\_\_\_\_, Lai, Y. L., & Zhao, R., "Shades of blue :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1), 2012.
- \_\_\_\_\_, Stack, S., & Sun, Y.,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Japan and Americ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6(4), 1998.
- Decker, S. H.,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 A review of past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9(1), 1981.
- Erez, E., "Self-defined desert and citizens' assessment of the police",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5(4), 1984.
- Farkas, M. A., & Manning, P. K., "The occupational culture of corrections and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0(2), 1997.
- Frank, J., Smith, B. W., & Novak, K. J., "Exploring the basis of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2), 2005.
- Goudriaan, H., Wittebrood, K., & Nieuwbeerta, P., "Neighbou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hesion,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2006.
- Granovetter, M.,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 The problem

-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1985.
- Hough, M., “Modernization and public opinion : some criminal justice paradoxes”, *Contemporary Politics*, 9(2), 2003.
- Hurst, Y. G., Frank, J., & Lee Browning, S. (2000), “The attitudes of juveniles toward the police :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youth”, *Polic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3(1) : 37-53.
- Hwang, E. G., McGarrell, E. F., & Benson, B. L.,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South Korean Police : The effect of residential location in a rapidly industrializing n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6), 2005.
- Innes, M., “Reinventing tradition? Reassurance, neighbourhood security and policing”, *Criminal Justice*, 4(2), 2004.
- Jackson, J., & Bradford, B., “Crime, policing and social order : on the expressive nature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3), 2009.
- \_\_\_\_\_, & Sunshine, J.,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2), 2007.
- Jang, H., Joo, H. J., & Zhao, J. S.,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2010.
- MacDonald, J., & Stokes, R. J., “Race, social capital, and trust in the police”, *Urban Affairs Review*, 41(3), 2006.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1995.

- Reiner, R., "Police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 a critical review", *Crime and Justice*, 15, 1992.
- Reisig, M. D., & Parks, R. B.,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 A hierarch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17(3), 2000.
- Ren, L., Cao, L., Lovrich, N., & Gaffney, M.,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2005.
- Schafer, J. A., Huebner, B. M., & Bynum, T. S.,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services : Race, neighborhood context, and community policing", *Police quarterly*, 6(4), 2003.
- Skogan, W. G.,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s :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Policy Studies Journal*, 7, 1978.
- \_\_\_\_\_,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2009.
- Stoutland, S. E., "The multiple dimensions of trust in resident/police relations in Bost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3), 2001.
- Sung, H. E., "Police effectiveness and democracy : shape and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Policing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9(2), 2006.
- Sunshine, J., & Tyler, T. R.,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2003.
- Weitzer, R., & Tuch, S. A., "Race and perceptions of police misconduct", *Social problems*, 51(3), 2004.

Wu, Y., & Sun, I. Y., & Triplett, R. A., "Race, class or neighborhood context : which matters more in measuring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26(1), 2009.

\_\_\_\_\_, "Citizen Trust in Police The Case of China", *Police Quarterly*, 12(2), 2009.

Xu, Y., Fiedler, M. L., & Flaming, K. H., "Dis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policing : The broken windows thesis, collective efficacy, and citizens' judg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2(2), 2005.

Zamble, E., & Annesley, P., "Som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15(4), 1987.

< ABSTRACT >

## A Multi-Level Approach to Confidence in the Police : Based 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Perspectives

Jung, Bo-Sung · Lee, Chang-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end the multi level approach to confidence in the police to establish a model that considers individual level and national level factors at the same time and to conduct empirical verific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s of citizens of various countries.

The results showed that age, social class, and an experience of crime victimiz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t the same time, among the national level variables, individuals in areas with high levels of access to the public service were less likely to trust the polic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meaningful as we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the police, not only by inputting individual level variables but also by applying the national level variables to the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far as the data of 56 countries were gathered and analyzed i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an attempt to increase the dispersion of the group level variance and thereby to reduce the bias that may occur in estimating the coefficients.

◆ **Key words** : Confidence in the Police, Instrumental Perspective, Expressive Perspective, Fragile States Index, World Value Survey